

● 特 輯

□□□□ '66年の 圖書館 一線動向과  
'67年の 展望 □□□□

張 一 世

(國立中央圖書館 司書課長)

一. 1966年の 圖書館一線動向

1954, 5年을 契期로 하여 우리 나라의 各級 도서관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 왔다. 그러나 1966年과 같이 눈에 띄이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준 해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학교도서관 운동이 本格化하고, 조직적인 圖書館協會 활동이 시작된지 10年이나 지났으니 오늘 날과 같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만한 시기가 到來한 것도 사실이지만 近間의 움직임은 年例의이거나 일반적인 활동이라는 것 보다 오히려 進取的이고 能動的이라는 點에서 前例가 없는 일이어서 매우 鼓舞的이고 希望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도서관과 公共도서관에 있어서의 一線動向은 참으로 刮目한 바가 있다 하겠다.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비해 본다면 大學도서관은 가장 꾸준히 그리고 착실하게 內容의 充實化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 豫算面에서나 또는 人的 構成面에서 엿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特殊도서관은 그 도서관의 性格上 그리 表面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大學과 特殊도서관 分野에서는 一線에서의 움직임도 별반 없는 것이 학교도서관이나 公共도서관과는 뚜렷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大學과 特殊도서관 分野는 除外하고 學校 및 公共도서관 분야에 한하여서만 記述해 보고자 한다.

A. 公共圖書館의 움직임

공공도서관은 숫적으로는 별반 변동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1964년에 비해 1966년까지에는 겨우 5個館이 증가한 53個館 뿐이다. 이와 같은 숫자와 正比例하여서 움직임도 전연 없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1966年에 들어서 부터는 놀랄만한 획기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1966년 5월에 있었던 第1回 全國公共圖書館長會議로부터 시작된다.

이 모임은 순전히 전국 公共도서관의 자발적인 모임

으로서, 우리 나라의 각급 도서관계 가운데서 가장 침체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분야를 어떻게 하여야 振興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가 打開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즉 공공도서관의 발전 없이 祖國近代化는 이룰 수 없고 전체 국민문화의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국 공공도서관은 절실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의 當面問題와 더불어 根本的인 打開策이 진지하게 토의되었음은 물론 常任研究委員會를 조직하여서 提起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研究하기로 한 것은 큰 收穫이다.

토의된 案件은 그야말로 중요하지 아니한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추려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a. 市區郡 單位 一圖書館設立문제
- b. 所屬廳 一元化문제
- c. 도서관직원 敎育문제
- d. 도서 相互貸借문제
- e. 각종 書式統一化문제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첫째 문제이다.

國立中央圖書館을 頂點으로 하여 市, 道立 도서관이 地方의 중심 도서관이 되고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郡立 도서관(큰 都市에 있어서는 區圖書館)은 다시 一線과 연결하는 도서관 조직網이 완성됨으로써 비로써 우리 나라의 온 국민이 도서관의 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6,300 여개나 散在되어 있는 마을文庫도 도서관 조직망이 형성 됨으로써만 제 기능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

지난 11월 10일에 열렸던 마을문고 全國 代表者大會 때에 역시 市區郡單位 公共도서관을 설치하여 달라는 建議文이 채택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서관 직원 敎育문제가 자체에서 提起된 것도 중요한 움직임이다. 지금까지는 거의 無關心 속에 버려졌

던 도서관 내지는 도서관 직원문제는 오늘 날에 와서는 무관심 속에 놓아 둘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도서관이 바로 움직이기 위하여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晩時之歎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획기적인 發展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교부 주최로 延世大, 梨花女大 및 도서관협회에서 주로 司書敎師 양성을 위한 강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公共도서관 직원을 위한 강습은 그리 많지는 못하였다. 그 회의에서는 사서직을 위한 강습 또는 再敎育을 위하여 國立中央圖書館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을 달성하기 위하여 新年度 豫算에는 이에 대한 경비가 計上되었다는 것은 時期에 가장 적당한 처사라 할 것이다.

도서관 상호貸借문제는 早晚間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그 회의에서 연구과제로 채택된 것도 크나큰 進展이라 하겠다.

도서관 상호 대차문제가 논의된 것은 이 회의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 해 全國 國立大學 도서관장 회의에서 駁論된 것이네 이 제도의 중요성이 공공도서관에서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만큼 공공도서관이 思考하는 방식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볼 때 도서관 구입비가 매우 적은 우리들 형편에서는 도서관 구입비의 효과적인 사용이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도서관 상호대차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한 연구는 시급한 과제일뿐만 아니라 가장 시기에 적합한 일이다.

각종 書式의 통일화는 사무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도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많이 생겨날 공공도서관을 위하여도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이것은 멀지 않아 실시될 것으로 예견되는 도서관 상호대차제도를 확립하는데도 역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다.

소속청 一元化문제는 맨 처음 이야기한 市區郡 도서관이 발전할 때 자연히 해결될 일이므로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나 연구과제로서는 역시 좋은 문제이다.

上記한 문제들은 그후 계속하여서 연구 검토되고 있고 그 중 몇몇 문제는 참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서 앞으로 큰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아직 그러한 성과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얼마 안가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을 것은 틀림 없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매우 鼓舞的인 현상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이 지역사회의 일반 住民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느끼게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필자는 이러한 자발적인 현상이야말로 진정한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차 역설한 바 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일어 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지만 모든 문제가 뺨뺨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文化的 向上이 수반함으로써만 우리들의 理想社會를 만들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어, 그러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도서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一大 前進를 뜻한다.

光州學生事件을 기념하기 위한 學生會館 建立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의 구체적인 성과로서 市民을 위한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라든지, 全州市立 도서관의 신축, 春川 및 淸州 시립도서관의 擴張, 그리고 특히 大統閣閣下에서 大邱市立 도서관 신축을 위하여 각별하신 후원을 해 주신 일 등은 위에 이야기 한 것을 실제로 증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大도서관의 신축, 증축, 확장과 아울러 江原道 全域에서 일어나고 있는 小공공도서관 건립운동, 閔慶郡立 도서관의 신설 등등은 大都市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氣運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 해 주고 있다.

이와같은 기본적인 시설과 아울러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비품의 개선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원의 質的 향상을 위하여도 노력하고 있고 또 외국 재단에서까지도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고 있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奉仕面에서 改善을 보고 있다.

### B. 學校圖書館의 움직임

지금까지 量的으로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학교도서관이다. 한국도서관협회에 의한 도서관 통계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762권이 늘어났다. 장서량이 500권 이상에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한 관계로 500권 미달인 학교도서관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急墜는 직접적으로는 도서관법의 영향에 있지만 近年에 이르러서는 학교 자체에서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신설하는 도서관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공공도서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역시 획기적인 발전이다.

몇년전 필자가 지방의 학교도서관을 시찰하였을 때에는 학교에 도서관이 따로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

가 하는 질문을 가는 곳마다 받았었다. 그러나 近年에 이르러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학교에는 반드시 도서관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을 학교 책임자들 입에서 듣게 되고, 교육 하면 도서관을 聯想하게끔 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 나라의 학교도서관 분야도 참으로 밝은 展望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을 필자는 금년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는 동안 江原道の 두메 산골에서 부터 慶尙道, 全羅道에 이르기까지 직접 目擊하고, 참으로 많은 感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움직임과 아울러 중요한 동향은, 이제는 질적인 면에서 학교도서관을 충실화 하여야겠다는 것과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주민과 학생들에게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국민학교는 국민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우리들의 현실을 충분히 살리면서 현실에 맞는 봉사방법과 자료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온갖 노력과 연구가 전국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연구 발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의 두드러진 예로서는 지난 10월 14일 江原道 春川市 教育大學 부속국민학교에서 있었던 全國師大 및 教育大學 부속국민학교의 共同研究發表大會와 同月 20,

1日 兩日間에 걸쳐서 大邱女子中學校 圖書館에서 가졌던 大韓教育聯合會와 韓國學校圖書館研究會 공동주최로 열렸던 全國學校圖書館研究發表大會에서 볼 수 있는데, 前者는 全國師大·敎大附國 共同 연구 과제로서 「국민학교 도서관 이용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를 채택하고 수개월간 공동 연구한 것을 발표하였다.

春川에서 發表된 내용을 大別하면 국민학교 도서관 교육과정 작성문제, 독서 흥미 발달과 독서 경향조사, 국어 單元別 書目 작성문제 및 버어티컬 파일 자료 정리 문제 등으로서 현하 우리 나라 국민학교도서관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현장 실습 결과와 더불어 발표되었는데,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서교사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大邱에서 있었던 發表大會는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망라한 전국적인 발표대회였는데 여기에서 발표된 主題와 발표하신 선생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벽지 국민학교에서의 학교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실철 연구. 정용채 선생.
2. 농촌학교 교육환경에 맞는 학급문고 운영의 실천적 연구. 남주중 선생.
3. 학습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도서관자료 활용에 관한 연구. 정문교 선생.
4. 도서관 교육과정 운영의 실천적인 방법연구. 김

완기 선생.

5. 독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방안 연구. 박봉학 선생.

6. 국민학교에 있어서 효과적인 독서지도에 대한 연구. 박영수 선생.

7. 독서 의욕과 흥미 조장을 위한 도서관 운영. 정성모 선생.

8. 농촌학교를 중심으로 한 겸용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김이주 선생.

9. 교과 단원 학습에 적결시키는 도서관 이용 방법의 연구. 장상도 선생.

10. 학교 도서관에서의 도서 선택. 조영식 선생.

11. 독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도서관자료 활용의 연구. 김영호 선생.

12. 학교도서관을 통한 문제 학생의 생활지도. 이병수 선생.

13. 도서 의외의 자료 수집, 정리 및 그 활용의 실제. 이종남 선생.

이상 열거한 주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주제가 시기에 가장 적결하고 학교도서관으로서 마땅히 연구되어야 할 주제들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그 지역사회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의 봉사 방법을 연구한 것들이 여러 편 있었다는 사실과, 중고교 보다는 국민학교에서의 도서관 활용연구가 더 활발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이미 공공도서관 부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야흐로 전국적으로 도서관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散在되어 있는 마을문고와 학교도서관과의 유대, 학교도서관을 그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공공도서관적인 역할을 담당케 하는 방법 강구 등은 참으로 훌륭한 着想이라 아니 할 수 없다.

春川이나 大邱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연구 발표 이외에도 지역적으로 무수히 유사한 연구 발표나 또는 현장 실습이 있어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밀히 분석하고 있어서 이의 결과는 장차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의 방향과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은 물론이다.

## 二. 1967年의 展望

1966년에 있어서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분야의 움직임은 위에서 略述하였거니와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우드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意慾的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能動

的으로 할 수 있는 제반 條件을 개선 해 주어야 한다.

사실 지금 현상으로 보면 너무도 많은 隘路가 놓여 있다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일반적인 문제는 관제 당국이나 또는 행정 책임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沒理解와 도서관 직원에 대한 處遇問題이다. 前者는 도서관의 財政 확보와 직결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는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短時日 안에는 해결할 수 없는 至難한 문제들이다.

학교도서관 문제를 보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점들을 內包하고 있다. 즉 司敎敎師의 지위 문제와 사서교사의 TO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국민학교에 있어서의 사서교사 자격문제, 도서비의 확보문제 등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결 되어야 하겠고, 표준적인 도서관 교육과정의 연구, 문교부에 의한 도서관 운영 지침의 작성도 빨리 해결되어야 하겠고, 학교도서관 시설 기준의 제정, 공포는 문교부가 마땅히 하여야 할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시설 기준과 같이 도서관법에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法대로 조속히 제정하여야 하는 문제와 함께, 교육공무원법에 제정된 사서교사 관제 조항의 모순도 빨리 시정되어야 하겠다. 무릇 民主國家란 法에 의하여 모든 것이 움직여 나아가는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미 3년 전에 法에 의하여 제정키로 한 것을 여지껏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특별법인 도서관법에서 규정된 것이 교육공무원법에서 모순을 들어 낸 것이라든지는 정부로서 시정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하루 빨리 이러한 모순을 제거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더욱 뒷받침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列擧한 많은 隘路가 첩첩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각급 도서관이 눈부신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도서관의 존재 가치가 국민들 가운데서 널리 인식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惡條件을 뚫고 발전하는 우리 나라 도서관계에서 하나 하나의 惡條件을 除去 해 준다면 발전하는 속도는 더욱 拍車를 가하게 될 것이고 더욱 활발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造成될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惡條件을 除去하고 개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문직 사서들이다. 筆者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직 사서들의 노력 如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筆者는 이러한 생각을 평소의 持論으로서 늘 가지고 있다.

우리들 속담에 <우는 아기에게 먼저 젖을 준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하나의 속담 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속담 속에 眞理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들 전문직 사서들이 우리들의 입장과 당면 문제들에 대하여 울부짖어 본 일이 있는가? 우리들이 전문적이 아닌 도서관인이나 또는 도서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모범이 될만한,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열의를 가지고 도서관 일을 보아 왔고 우리들의 임무인 봉사를 성실껏 해 왔던가? 우리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불평만을 일삼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태도가 이러 할 때 과연 우리들의 불평이나 불만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들 전문직들은 깊이 반성하여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筆者는 지난 수개월 동안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귀중한 체험을 하였다. 즉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을 요구할 때 우리들의 요구는 관철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1967년에야말로 우리들이 더 열심히 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한편으로는 악조건을 제거하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와 같이 할 때 우리들 앞날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圖書板本學要略

屈萬里, 昌彼得 共著, 沈暉俊 譯, 서울, 文成社,  
1966年 11月. 200p, 圖版, 19cm (書誌學叢書 1) 360원

中國歷代의 圖書名稱, 形制 및 雕板術과 雕板源流를 記述하고 板本을 鑑別하는 方法과 古書整理에 必要한 板本著錄의 規例와 術語를 詳述한 形態書誌學書로서 初學者나 古書整理를 擔當한 司書들이 읽어야 할 常識書이다. ※ 本書를 希望하시는 분은 東國大學校 圖書館에 問議하시기 바랍니다.